권용만 고택 예술제

1면에 이어

이에 11대 종손 영도(寧度)와 그 후손들이 극력 조치하여 이곳에 다시 옛집을 중건하고 드디어 산천재(山泉齋)의 옛 액자를 다시 걸었으며 이를 산천재(山泉齋)라 이름 함은 주역(周易) 몽괘(蒙卦) 상전(象傳)에 (山下出泉이 蒙이니 君子以하야 果行育德 하나니라) 이를 해석하면 산 아래 생이 솟으니 이를 몽(蒙)이라 한다. 군자은 이를 본받아 과감(果敢)히 행(行)하고 덕(德)을 기른다고 한 데서 따온 이름이다.

이곳 산천재에는 학봉 김성일(鶴峯 金誠一)의 증유시(贈遺詩)와 송암 권호문(松巖 權好文)의 기제 산천재(寄題 山泉齋) 시판(詩板)과 채산 권상규(蔡山 權相圭)의 중건(重建) 기문(記文)이 게판 되어 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세(權寧世) 안동시장(安東市長)의 격려사와 행사취지의 설명을 권석순(權錫純) 안동시의회 사무국장이 대신하였으며 13대 종손 권기백(權奇栢) 대덕대학교 교수, 공학박사의 환영사와 함께 산천재의 유래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권광택(權光澤) 안동시의원의 축사가 있었으며 권창호(權昌鎬) 이장이 경과보고 및 준비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 이어서 장혜숙 아나운서의 사회로 식전공연으로 한절골 풍물패의 농악연주에 모든 관객이 어깨를 들썩거리며 신명을 함께 하였으며 퓨전국악에 인연, 칠갑산, 다향, 찔레꽃을 대금 임성국과 해금 이수빈이 연주하여 잔잔한 감동을 주었고 자연의 소리에 권영태씨의 풀피리 연주, 톱 연주, 카우벨 연주에 큰 박수가 있었다.

이어 밤하늘의 재즈에 박준배, 박경모 2인조 앙상블이 영화음악 레드2와 장사익의 대전부르스를 연주하고 장혜숙 사회자가 청춘이란 시를 낭송하여 잔잔한 감동을 주었으며 김복순 외 1인의 명창이 경기민요 양산도, 청춘가, 뱃노래 등을 불러 절정을 이루었다.

공연이 끝나고 주민 화합 한마당 잔치에 경품추첨과 노래자랑 및 한절골 쏘가리 매운탕과 골부리(다슬기를 경상도 안동지방에서는 "골부리"라고 부름) 시식이 이장 권창호씨의 주관 아래 이루어지고 푸짐한 음식으로 여름밤을 시원하게 하고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글:복야공파 대구파친회회장 권혁창, 사진:용만선생 13대손 권기백〉

능곡회 제27·28대 신·구임원 이·취임식

안동권씨능곡회는 2013년 제27.28대 회장 및 신.구 임원 이. 취임식이 7월 24일 오후 7시 안동시 송현동 봉화축협하나로마트 2층 <묵향>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권계동 안동권씨대종원 상임부총재, 권재주 안동권씨안동종친회장, 권영세 안동시장, 능곡회원 및 부인회원 그리고 능우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제27대 권기형 사무국장과 제28대 권기춘 사무국장 두 국장이 나누어 진행을 하였다. 국민의례, 시조묘소망배, 내빈소개, 우대회원 및 전임 임원소개, 이임사, 능곡회기 인수인계, 취임사, 꽃다발 전달, 우대회원 선물전달, 공로패 전달, 신임회장단 및 임원소개 등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27대 권기덕 회장은 이임사에서 "능동 춘추향사 때 회원들이 열심히 협조해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밝히고 "이제 중책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며 "앞으로 회(會)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28대 권영훈 회장은 취임사에서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회원 단합대회, 안동권씨 청장년전국체육대회, 능동 춘추향사에 적극 참여, 능동고택 음악회를 수행해 나가면서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하고 회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권영세 안동시장이 능곡회 명예회장으로, 권경열씨(부정공파) 등 11명이 능곡회 신입회원으로 각각 가입하였다.

△능곡회장 취임 케익절단(원내는 권영훈 회장)

권계동 상임부총재, 권재주 안동종친회장, 권영세 안동시장, 권혁록 능우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1부 행사가 끝나고 곧 이어서 2부 행사로 축하케이크 절단식이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바로 옆 <묵향>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불고기와 곁들여 저녁을 먹고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해산하였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보리쌀과 현미의 혼합곡이 들어있는 1.8kg인 <명품잡곡선물세트> 한 통을 선물을 주었다.

회장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 권영훈, 상임부회장 : 권순창 부회장 : 권중익 감사 : 권기형, 오진

운영위원장 : 권기덕, 재무국장 : 권태형 사무국장 : 권기춘 분과위원장 : 권기락, 은달, 기호, 순용, 용철, 진업, 우성

〈보도부장 권영건〉

권영세 안동시장 취임 3주년 기념식

안동시는 민선5기 출범 3주년을 맞아 1일 안동시민회관에서 권영세 안동시장 취임 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취임 3주년 기념행사는 행사 간소화와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정례조회와 병행해 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다.

기념식은 시립합창단 축하 공연과 지난 3년간 행복안동 만들기 성과 동영상 상영, 국·도·시정 추진 유공자 포상, 취임3주년 기념사, 식후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이 자리에서 취임 후 3년간의 소감과 행복안동 만들기 성과 및 앞으로의 시정운영에 대한 다짐을 밝혔다.

품격높은 도시, 풍요로운 시민, 행복안동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민선5기 안동시의 공약사항은 6대 분야 38건으로 평균추진을 81%를 넘겼다. 6월까지 분석결과 7건(18%)이 마무리 되었고, 정상추진 30건(79%), 단계추진 1건(3%)으로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회슬로시티조성과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건립, 백신공장 유치, 경북바이오벤쳐프라자 건립, 가정용 상수도 요금 반값공급, 동부시외버스 정차지 설치 등은 마무리했다.

또 도시공간창조 프로젝트 추진과 영어마을 확대, 소상공인 육성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등 대부분 공약들이 첫 삽을 떴거나 성과물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공약사항 평균 추진율을 9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성과로 지난 2011년 한국매리페스트 실천본부(상인대표 강지원)로부터 "일자리 창출 공약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동 향우신문 2013.7.31. 인용〉

권태용 경제학박사 학위 취득

권연진씨의 장남 권태용씨(안동 44 정조공파 37世) 가 지난 7월 3일 영국버밍햄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씨는 부친 권연진씨와 모친 장말본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한국은행 재직중 영국 버밍햄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권태용 박사는 현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과장으로 재직중이며 부친 권연진씨는 서울지방철도청에서 토목사무관으로 근속하면서 근정표창을 수여 받았다.

〈편〉

• 동정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수도방위사령부 내 지하벙커인 한미연합사 훈련현장을 찾아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하고있는 권오성 한미연합부사령관을 격려했다.

▲권오을 前 국회의원(전 국회사무 총장)은 11일 포럼 오늘 사무실에서 122차 공부방을 개최했다.

▲도영심 유엔세계관광기구스텝재단이사장(권정달 총재부인)은 23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유엔 MDG(새천년개발목표)빈곤퇴치 포럼'을 주최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임하댐 구장에서 열린 제46회 대통령 금배 전국고교 축구대회 안동고와 영등포공고 경기장에 찾아 시축 후 경기를 관람했다.

▲권재진(60세)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건물 20층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15일 서울 서교동 사무실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미담

권영삼 포항남부서 경사

16년째 노래 재능기부

16년째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노래 공연을 한 경찰관이 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효자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권영삼(45) 경사. '폴리스 가수 권'으로 통하는 그는 가수 배일호(56)씨에게 곡을 받아 트로트 음반을 3집까지 낸 실력파다.

2012년 경찰청이 '홍보 경찰관'으로도 선정한 권 경사는 1992년 순경으로 경찰관이 됐다. 이후 96년 KBS 전국노래자랑(포항편)에 출연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권 경사는 "시민들 앞에 서서 처음 노래를 부르고, 큰 상도 받게 된 뒤엔 '내가 노래로 다른 이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겠구나' 싶었다"며 "되도록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듬해부터 근무가 없는 날 경찰관 제복을 차려입고 고아원, 장애인단체, 경로당을 찾았다. 신나는 트로트를 한 곡조 뽑으면, 하나둘 앞으로 나와 춤을 추면서 자연스럽게 무대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해가 갈수록 각종 이웃돕기 행사장에서 '폴리스 가수 권'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 지금도 권 경사는 쉬는 날이면 버릇처럼 고아원이나 경로당 등을 찾아가 트로트를 한 곡조 뽑는다. 그렇게 해온 공연이 400회를 넘어섰다.

2005년부터는 모금공연도 하고 있다. 매년 겨울, 세 차례 열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작은 음악회다. 대형 마트나 시내 중심가에서 2시간 동안 홀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른다. 매년 모금액은 100만원 남짓. 전액 불우이웃 시설로 보낸단다.

공연을 하면서도 그는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잊지 않는다고 했다. 공연을 시작하면서 "반갑습니다"란 인사 대신 "음주운전하지 말고, 교통질서는 잘 지킵시더. 알겠지예"라고 한다. 권 경사는 "앞으로도 이웃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관의 책무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97년 1집 '단 한번의 K.O', 2006년 2집 '잡지 마라'에 이어 이달 중순 3집 '한번만 더'를 발표한 그는 "앨범 수익금이 생기면 이웃들과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일보 2013.7.31. 인용〉

창의기념관

합천 임란창의기념관과 의령 충익사

■ 과운 권해조

오랜만에 합천임란창의기념관(壬亂倡義記念館)과 의령 충익사(忠翼祀)를 탐방하였다. 두 곳은 460여 년 전 임진왜란 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영혼이 잠든 곳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의병은 전국적으로 2만3천여 명이나 되었으며, 대표적인 의병장은 영남에 곽재우, 권응수, 정인홍, 호남에 고경명, 김천일, 호서에 조헌, 승병(僧兵)인 휴정, 유정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의병의 효시(嚆矢)는 정인홍, 곽재우, 김면(金沔)등 서부영남의 남명(南冥)의 문인들이었으며, 그 가운데 곽재우가 제일 먼저 의병을 일으켰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서부영남의 정인홍, 곽재우, 김면, 박성, 오운, 조종도, 박사재, 이노 등 남명문하생들이 1만 명 이상이 규합하여 대대적인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합천, 초계, 삼가, 고령, 성주일대를 장악한 정인홍이 의령 현풍지역의 곽재우와 거창방면 김면과 손을 잡고 경상우도 의병활동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먼저 합천임란창의기념관은 임지왜란 때 합천지역 (당시 합천, 초계, 삼가)을 중심으로 창의한 선열들의 고귀한 호국희생정신을 추모 선양하고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세워졌다. 합천군이 1992년 3월 옛 문화원에 기념사업회 사무실을 설치하여, 기념관 건립대책 연석회의를 거쳐 1994년 1월에 경남도지사로부터 기념관 부지 공공용지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그해 11월 5일 기공식을 하고, 8년 만인 2001년 5월10일 준공식을 갖고 개관하였다.

기념관은 합천군 대병면 성리 539번지 합천호 옆 3만4천 48평방미터 부지에 국비, 도비, 군비와 후손들의 성금 등 모두 61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사당, 전시관 등 건물 9개동과 기념탑, 기념비 1기씩 세워져있다. 주요건물은 정인홍 등 113위의 의병 창의장의 위패가 봉인된 창의사, 창의장(倡義將)들의 유품이 전시된 유물관, 임란창의의 사상적배경과 창의장들의 의병활동을 교육할 경의당 등이 있다.

대표적인 의병장인 래암 정인홍은 1536년 합천 가야면에서 출생했으며, 어릴 때 기품이 뛰어나 서봉(瑞鳳)으로 불렀으며, 15세 때 남명문하에 들어가 수문고제(首門高弟)가 되었다. 23세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했으나 학문에만 전념하다가 38세에 황간현감으로 제수되고, 45세에 사헌부 장령으로 출사했으나 회의를 느껴 낙향하여 부음정(孚飮亭)을 짓고 후학양성에 전념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3천여 명의 의병을 모집하여 곽재우, 김면 등과 연합전선을 펴면서 무계(茂溪)전투, 초계전투, 안언역(安彦驛)의 대승, 단성에서 호남의병 최경회군 지원, 진주성 부원(赴援)작전, 성주성 탈환작전 등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그는 60고령에 외아들까지 잃으며 국난극복의 일념으로 싸웠으며, 정유재란 시에도 창의모병으로 특별수훈자로 평가받았다. 임난 후에 형조판서, 승정원 부승지 등에 전수되었으나 사양하고 사헌부 대사헌에 잠시 부임 후 낙향하였다. 광해군 때 78세에 우의정, 80세에 좌의정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여 산림정승(山林政丞)으로 불렸다. 83세에 영의정에 제수되었으나 88세 때 인조반정 폐모론 주동자로 몰려 처형되었으며, 1908년 순종칙명으로 영의정에 복위되었다. 일본학자 귀정정지(貴井正之)가 '정인홍 의병활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우리 학계에서 '창의활동과 사회개혁론' 등 정치적 사상적 혁신을 통한 역사기능 연구에 재조명되고 있다.

의령 충익사(忠翼祀)는 임진왜란 때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왜군을 무찌른 홍의장군 망우당 곽재우 장군(1552-1617)과 휘하 장령 17명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1972년 최초 세웠으며, 의령군이 1978년 의령읍 중동리 467-2 남산 밑에 새로 건립되었다.

충익사 입구에는 곽재우 장군과 휘하장령 17명을 상징하는 18개의 백색 고리에 27미터 높이의 의병탑과, 위패를 모신 사당, 장군이 사용하던 칼과 갓끈, 말안장 등이 보관된 보물 제 671호로 지정된 곽 망우당 유물관이 있으며 경남 문화재 제52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의령군은 임란창의 421주년과 제3회 의병의 날을 맞아 올해 2억5천여만 원을 들여 새로 단장하였다. 이와 별도로 세간리 생가에는 조선 초기 건축양식으로 7동의 건물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청소년 나라사랑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부산광역시 종 친회를 이끌어갈 임원

2013.6.1부터 2015.5.31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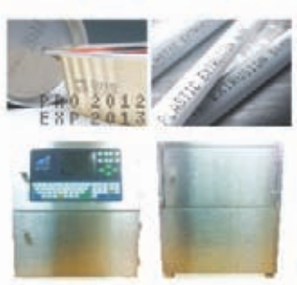
고문 : 권종갑, 용주, 사영, 영적, 영한, 철현
자문위원 : 권응규, 오숭, 경봉, 운현, 영호, 영욱, 경욱, 경훈, 중환, 성현, 덕수, 기룡, 용근, 재혁
명예회장 : 권재목
회장 : 권길상
수석부회장 : 권중원
부회장 : 권성용,춘식,정수,상빈,태문,태현(청년회장),재철,영수,영위,영복,영길,영만,영우,영식, 재태, 재문,영흥,태현(천등회장),석봉,오관,수현,영갑,영호,임호,출오,영호,태현(사상구종친회 장), 영현,우진,장섭,도영,삼찬,숙이,오범,갑수,양호,영훈,혁식,영열,순돈,영,인환,해극,상흠,혁필, 기우, 혁만,용기,병규,태현,용진,태식,정순
감사 : 권영인, 오식
사무국장 : 권용섭
운영위원 : 권영준,영길,병걸,오원,혁남,춘길,복수,오용,기화,명칠,명오,종헌,부현,오길,범수,태갑, 해간,경도,해권,기록,용순,재식,윤현,해운,오상,혁윤,민준,영순,대현,우진,상수,대호,오헌, 창규,영국,재정,원술,오탁,운현,해동,인숙,오순,옥태,진찬,문정,춘자,이광,기호,강현,영태, 진수,덕림,덕진,택조

안동권씨 부산광역시 종친회장 권길상 근고

稅務士 權 九 文 事務所

■ 양도, 상속, 증여세 상담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개인, 법인의 기장, 고문
■ 기타 세무상담 일체환영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73-14 보보스텔 208호
TEL:2066-9741~4 / H.P : 011-307-2443 FAX : 2066-9745



산업용 잉크젯 프린터 국내 제조

(주)HI-TECH
에이치아이테크
대표이사 권성률
(39. 인천. 추밀공파 제간공계. 36世)
C.P 010-7325-7556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4번지 송도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B동 1019호
Tel : 070-8780-7556
Fax : 032- 572-9996
E-mail : navy9994@naver.com
http://www.HolyInks.com